

초·중학교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영역 탐색: 교사 실천 경험을 중심으로*

이진아** · 정혜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전환기 교육 실천 경험을 분석하여 초·중학교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영역을 도출하고, 두 학교급 간의 내용적 연계 구조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을 3년 이상 담임한 경험이 있는 교사 12명(초등 6명, 중등 6명)을 의도적 표집 방식으로 선정하여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전환 준비’ 프로그램과 중학교 ‘전환 적응’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7개 교육 내용 영역이 도출되었다. 7개 영역은 정보 제공 및 환경 적응 지원, 자기관리 지원, 학업 적응 지원, 정서·심리 지원, 또래 관계 지원, 학부모 교육, 학교 간 연계이다. 각 영역은 초등학교에서는 ‘준비’의 성격으로, 중학교에서는 ‘적응’의 성격으로 운영되며, 초등학교에서 예고하거나 연습하는 내용이 중학교에서 실제 적용되거나 현장 지도되는 내용적 연계 구조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환기 교육의 제도화, 진로연계교육의 확장,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계 강화, 전환기 담임교사에 대한 지원, 학부모 교육의 포함, 디지털 적응 지원 내용의 추가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초·중학교 전환기, 전환기 교육, 전환 준비, 전환 적응, 교육 내용 영역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논문접수일: 2026.03.04.

논문수정일: 2026.04.02.

게재확정일: 2026.04.10.

I. 서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학교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 학생들은 학교 환경, 수업 방식, 평가 체계, 교사-학생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학업적·정서적·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유순화, 2007; 정송 외, 2022). 특히 초·중 전환기는 중·고 전환기에 비해 적응 수준이 하락하는 비율이

* 본 논문은 이진아(2026)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박사과정 / jina910@snu.ac.kr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hychung@snu.ac.kr

높고, 가정 및 학교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정송 외, 2022), 이 시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초·중학교 전환기 교육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정송 외, 20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진로연계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시수가 제한적이고 진로 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전환기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전환기 교육은 주로 6학년 담임교사와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개별적 실천에 의존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의 전환기 교육 실천 경험과 제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맥락에 적합한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영역을 도출하고, 두 학교급 간의 내용적 연계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초등학교 교사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전환 준비’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영역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중학교 교사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전환 적응’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영역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내용적 연계 구조를 이루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초·중학교 전환기의 특성과 학생의 어려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은 단순한 학교급 이동이 아니라 학생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생태적·심리사회적 전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로 초등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은 학업 요구, 또래 관계, 교사 기대, 학교 문화 등 다양한 맥락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며, 이는 학생의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박찬욱 & 한호현, 2019; Anderson et al., 2000). 이러한 전환 과정은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도전과 밀접히 연결되며, 단지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발달적 필요와 학교 환경 간의 적합성(stage-environment fit)이 충족되지 않을 때 동기 저하와 자기인식의 부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Eccles et al., 1993). Dockett과 Perry(2007)는 학교급 전환 과정에서 ‘단절(discontinuity)’을 줄이고 ‘연속성(continuity)’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학교 전환은 담임교사 체제에서 교과교사 체제로, 통합교과에서 분과교과로, 상대적으로 보호적인 환경에서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여, 연속성보다는 단절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

국내 연구들은 초·중 전환기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유순화, 2007; 엄선영, 2012; 정송 외, 2022). 학업적 측면에서는 담임교사 체제에서 교과교사 체제로의 전환, 정기고사와 수행평가의 도입 등으로 인한 부담이 크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정서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 자존감 저하, 사춘기와 맞물린 정서적 변동성이 보고되고 있다(최효식, 2025). 관계적 측면에서는 또래 관계의 재구성과 교사-학생 관계의 다중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며(유순화, 2007; 정송 외, 2022), 환경적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책임 요구의 급격한 증가에 적응해야 한다. 정송 외(2022)의 중단 연구에 따르면, 초·중 전환기에는 적응 수준의 하락 비율이 상승 비율보다 높고 중·고 전환기에 비해 가정 및 학교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이 뒷받침된다.

2. 국내 전환기 교육과정 현황과 한계

전환기 교육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교육과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이전까지 전환기 교육은 주로 유·초 전환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시수가 확보되어 왔다. 반면, 초·중학교 전환기 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전환기 교육이 진로연계교육의 틀 안에서 시수로 명시되었으며 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교육부, 2026)에 따르면, 현재 전환기 교육은 주로 진로연계교육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표 1〉 학교급별 전환기 교육 현황 (202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교육부, 2026)

전환 시점	교육 내용	편성 시수
유→초 (초1)	진로교육 내 입학 초기 적응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34시간
초→중 (초6)	진로연계교육 내 전환기 교육(창의적 체험활동 3+ 관련교과 7)	10시간 이상
초→중 (중1)	진로연계교육	학교 재량
중→고 (중3)	진로연계교육	학교 재량

유·초 전환기의 경우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 34시간으로 비교적 충분한 시수가 확보되어 있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중 전환기 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에 창의적 체험활동 3시간과 관련 교과 7시간을 합하여 10시간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26).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진로연계교육 편성·운영 지침에 ‘입학 초기 및 상급 학교(학년)로 진학하기 전 학기의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 강화’라는 내용이 있으나, 구체적 시수는 제공되지 않고 각 학교의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고 전환기의 경우에도 중학교 3학년에 진로연계교육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역시 학교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등학교 진학 및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가 강조되면서, 진로 탐색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교급별 전환기 교육 현황을 비교해 보면, 유·초 전환기에 비해 초·중 전환기와 중·고 전환기의 교육과정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초·중 전환기의 경우, 학생들이 경험하는 변화의 크기와 적응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행 시수와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행 초·중학교 전환기 교육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시수가 부족하다. 유·초 전환기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직후인 3월에 34시간이 집중 편성되어 있는 반면, 초등학교 6학년 전환기 교육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수가 배정되어 있다. 초·중 전환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범위를 고려할 때, 이 시수만으로는 학업적·정서적·관계적·환경적 측면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더욱이 전환 적응이 필요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전환기 교육이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별도의 시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체계적인 전환 적응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행 전환기 교육은 진로연계교육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어 진로 탐색과 설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전환기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진로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학교 환경 적응, 또래 관계 형성,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아울러 현재 전환기 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두 학교급 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중학교에서 실제로 필요한 역량 사이의 간극, 학생 정보의 연계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3. 전환기 교육의 과제: 교사 실천 기반 프로그램 탐색의 필요성

지금까지 초·중학교 전환기 교육은 실질적으로 담임교사의 개별적 실천에 의존해 왔으며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의 지원 없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학생들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왔다. 이러한 교사들의 실천 경험은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교사들은 전환기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효과적인 접근과 한계를 체험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을 다년간 담임한 경력 교사들의 경우, 축적된 실천 경험을 통해 전환기 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방법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전환기 학생 지원에 필요한 영역으로 학교 환경 적응, 자기관리, 학업 적응, 정서·심리 지원, 또래 관계, 학부모 참여, 학교 간 연계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유순화, 2007; 이규미 & 김명식, 2008; 정송 외, 2022), 이는 어느 한 영역만으로는 전환기 학생의 적응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은 전환기 학생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적응의 과제를 추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적 고려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의 전환기 교육 실천 경험과 제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맥락에 적합한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영역을 도출하고, 두 학교급 간의 내용적 연계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전환 준비’ 프로그램을, 중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을 위한 ‘전환 적응’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을 3년 이상 담임한 경험이 있는 교사 12명이다. 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선정 기준은 첫째,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담임 경력 3년 이상, 둘째, 전환기 학생 지도에 대한 실천 경험과 성찰이 풍부한 교사로 설정하였다. 참여자 수는 초등 6명, 중등 6명으로, 학교급별 충분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면서도 질적 연구의 심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Braun & Clarke, 2006). 전환기 교육의 다양한 실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립, 국립,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포함하였으며, 연구자의 전문적 네트워크와 연구자 간 추천 및 학교 내 소개를 통해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구분	참여자	성별	학교 유형	총 경력	전환기 담임 경력
초등	초1-강	여	국립	4년	4년
	초2-김	여	국립	24년	8년
	초3-박	여	공립	22년	5년
	초4-송	남	공립	32년	20년
	초5-이	여	사립	20년	6년
	초6-정	여	공립	26년	6년
중등	중1-국	남	국립	12년	5년
	중2-김	남	공립	5년	4년
	중3-유	여	국립	17년	6년
	중4-전	남	공립	13년	5년
	중5-이	여	사립	22년	20년
	중6-최	여	공립	8년	4년

본 연구의 자료는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면담은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1인당 60분에서 70분 정도 소요되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을 실시했고,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면담 내용을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주요 질문 내용은 교사들의 전환기 교육 실천 경험, 구체적인 실천 내용과 운영 방식, 협력 및 연계 경험, 촉진·저해 요인, 향후 전환기 교육에 대한 제언 등이었다.

2. 자료 분석 및 연구 윤리

수집된 자료는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다. 먼저 전사된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와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전환기 교육 실천 및 제언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여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코드들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통합하여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하위 범주들을 재검토하여 최상위 주제(theme)에 해당하는 상위 범주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7개 영역은 이러한 분석 과정의 최상위 범주로서, 초기 코드와 하위 범주를 거쳐 수립된 결과이다.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주제와 범주를 원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 2명과의 협의를 통해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도출된 분석 결과의 일부를 연구 참여자에게 재확인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를 실시하여 연구자의 해석이 참여자의 의도와 부합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2025년 4월).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 목적과 절차, 면담 내용의 녹음 및 활용,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철회 권리 등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자발적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제시 시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명(초1-강, 중1-국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과정 예시는 <표 3>과 같다.

<표 3> 코딩 및 주제 도출 과정 예시

면담 내용 (원자료)	초기 코드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영역)
"중학교 선생님 모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애들이 확 달라요" (초4-송)	중학교 교사 초청	의도적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환경 적응 지원
"중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안 계셔" (초5-이)	담임 역할 변화 안내	일상적 발화	
"플래너에 기상 시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 쓰게 해요" (초1-강)	플래너 활용	자기관리 습관 훈련	자기관리 지원
"중학교 가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초2-김)	자기관리 필요성	자립성 인식	
"수행평가 기한 엄격하게 해요. 여기서 미리 연습해야 해요"(초2-김)	수행평가 기한 엄격 적용	평가 방식 연습	학업 적응 지원
"자존감이 약한 애가 갈등 겪으면 더 하락해요" (중5-이)	자존감 형성	정서적 안정	정서·심리 지원
"새 학교급은 시작을 위한 틈" (중5-이)	새출발 동기 부여	긍정적 기대 형성	
"친구 반응을 잘 살펴야 해, 장난과 폭력 구별해야 해" (초6-정)	또래 관계 주의점 안내	갈등 예방 교육	또래 관계 지원
"선행보다 아이 정서가 먼저"(초2-김)	정서 안정 강조	학부모 인식 전환	학부모 교육
"초등 때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중3-유)	학생 정보 단절	정보 연계 필요	학교 간 연계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영역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12명의 교사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7개의 프로그램 교육 내용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각 영역은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전환 준비’와 ‘전환 적응’의 하위 내용으로 구분되었다.

1. ‘전환 준비’ 프로그램 교육 내용 영역 (초등학교)

1) 중학교 생활 정보 제공

초등학교 교사 6명 전원이 전환기 교육의 핵심 실천으로 중학교 생활 정보 제공을 언급하였다. 정보 제공 방식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과 일상적 발화로 구분되었다.

의도적 프로그램으로는 중학교 교사 초청 수업, 영상 자료 활용 수업, 중학교 방문 체험, 선배 멘토링 등이 있었다. 초4-송 교사는 인근 중학교 교사를 초청하여 중학교 생활을 직접 설명하게 하였는데, “제가 말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라고 하였다. 초6-정 교사는 타교육청에서 제작한 짧은 영상과 학교 소재의 구청에서 제작한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이라는 20분 내외의 유튜브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였고, 초1-강 교사와 초2-김 교사는 졸업한 선배를 초청하여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정보 제공은 의도적 프로그램보다 일상적 발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사들은 수업이나 생활지도 상황에서 ‘중학교 가면...’이라는 표현으로 담임교사 역할 변화, 쉬는 시간의 자유, 시험 방식 등 생활적·학업적 차이를 수시로 언급하였다. 초5-이 교사는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안 계신다”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초3-박 교사는 ‘하루 3시간 시험’, ‘움직이면 안 된다’ 등 시험 방식의 차이와 수업 중 태도에 대해 수시 강조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표준화된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초6-정 교사는 “자료가 없어서 개인이 찾아야 한다”라며 전환기 교육 관련 PPT나 영상 자료의 배포를 요청하였고, 초3-박 교사는 ‘강의식이 아닌 학생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초4-송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안내해도 중학교 입학 후엔 다 잊는다”라며 중학교 입학 초기 프로그램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2) 자기관리 습관 형성과 자립성

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밀착 지도가 줄어들고 학생 스스로 생활과 학습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난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들은 6학년 시기에 자기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었다. 초5-이 교사와 초1-강 교사는 플래너를 통해 학습 내용을 필기·요약하고 생활 습관을 정리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 기상 시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등을 기록하게 하여 생활 전반을 스스로 성찰하도록 지도하였다. 알림장에 대한 부분,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는 훈련도 주요 실천으로 나타났다. 초2-김, 초4-송, 초6-정 교사는 중학교에서는 알림장 없이 스스로 준비물을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6학년 때부터 교사의 안내 없이 스스로 챙기는 연습을 시키고 있었다. 초2-김 교사는 “중학교 가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라며 자기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자기 주도 학습법 형성도 중요한 실천으로 언급되었다. 초1-강 교사는 진로검사 결과와 연계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도록 지도하였고, 초2-김 교사는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자기관리 훈련이 일상적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과정 융합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현재는 개별 교사의 판단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6학년 교육과정 내에서 자기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활동 지침이 제공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초1-강, 초2-김, 초4-송).

3) 학업 적응 준비

중학교에서는 서술형 평가, 수행평가, 정기고사 등 초등학교와 다른 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6학년 때부터 중학교 평가 방식을 ‘연습’으로 경험하게 하는 실천을 하고 있었다. 초5-이 교사와 초2-김 교사는 서술형 글쓰기와 수행평가를 위한 습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초2-김 교사는 수행평가 기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여기서 연습해야 중학교 가서 안 힘들다”라고 안내하였고, 지각 시에도 벌점 개념을 도입하여 ‘지금은 연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초6-정 교사와 초2-김 교사 역시 지각과 출결에 대해 “중학교에서는 점수제, 벌점제로 운영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초3-박 교사는 자기주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학업적 자립을 훈련하고 있었다. 태블릿을 활용한 프로젝트 과제를 부여하고, 모둠 활동에서 개인의 기여를 강조하여 중학교 수행평가 방식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초3-박 교사는 중학교 과제물을 보여주며 “이 정도 수준이 요구된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학업적 준비가 교사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중학교 평가 방식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 안내되면 교사들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초5-이, 초3-박).

4) 정서적 안정 및 동기 부여

전환기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과 긴장을 경험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실천을 하고 있었다. 하나는 불안 해소와 안심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과 새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초5-이 교사는 ‘괜찮아’를 반의

급훈으로 삼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정서적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초3-박 교사는 졸업 전 ‘정신 무장’ 시간을 마련하여 중학교 생활에 대한 심리적 준비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초1-강 교사는 “새로운 나를 보여주자”라는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어 1대 1 집중 상담을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어려움을 들으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중학교 진학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인식하게 하여 행동 안정화와 긍정적 기대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초6-정 교사는 자기 성찰과 인성 교육을 통해 전환기의 정서적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교사들은 전환기 정서 지원이 단순히 불안을 줄이는 것을 넘어,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긍정적 마음가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불안 해소와 동기 부여가 균형 있게 포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부적응 아동에 대한 학생 맞춤형 전환기 교육도 제안하였다(초3-박, 초5-이).

5) 또래 관계 역량 형성

중학교에서는 또래 관계가 재구성되고, 교사의 개입 없이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난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에 대비하여 또래 갈등 해결 역량을 기르는 실천을 하고 있었으며 또래 관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초1-강 교사는 또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으며 초6-정 교사는 “친구 반응을 잘 살펴야 한다”, “장난과 폭력을 구별해야 한다” 등 관계에서의 주의점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말고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을 지도하였다.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의 또래 관계 교육이 예방적 성격을 가지며, 중학교에서 실제 갈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다만 현재는 개별 교사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 내에 또래 관계 역량을 기르는 활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초1-강, 초3-박). 또한 남녀에 따른 또래 관계 역량 형성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초3-박, 초5-이).

6)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전환기에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불안을 경험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부모가 중학교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녀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을 하고 있었다. 초1-강, 초3-박, 초5-이 교사는 학부모에게 중학교 시스템(수업 방식, 평가 체계, 담임 역할 변화 등)을 안내하였고, 초2-김, 초6-정 교사는 선행학습보다 자녀의 정서 안정이 먼저임을 강조하였다. 교사들은 학부모 교육이 전환기 교육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개별 교사가 상담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부모가 중학교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별도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초2-김, 초6-정).

7) 학교 간 연계 기반 구축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간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 간 연계를 개인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시스템적 연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20년을 넘게 6학년 담임을 한 초4송 교사는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전문가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근 중학교 방문 체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중등 통합 수업코칭연구소에 참여하여 중학교 교사들에게 ‘초등학교에 바라는 점’을 수집하고 이를 학생 지도에 반영하였다. 초1-강 교사는 초·중등 연합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비공식적으로 학생 정보를 공유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는 특정 교사의 개인적 노력과 특수한 맥락(연구회, 연합교사학습공동체 참여 등)에서 가능한 것이었으며, 일반적인 학교 상황에서는 학교 간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교 간 연계가 전환기 교육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하였다. 6명 교사 모두는 초·중 교사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는데, 비공식 동아리나 친목 모임에서 시작하여 교육적 논의로 발전하는 방식, 합동 연수, 체계적 교사 교류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안내한 내용이 중학교 입학 후 잊히기 쉬우므로, 중학교 입학 초기 적용 프로그램과의 내용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6학년은 경력이 있는 교사가 담임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초2-김, 초4-송, 초6-정).

종합하여 전환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내용 영역을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전환 준비 프로그램 교육 내용 영역 종합(초등학교)

영역	실천	제언
중학교 생활 정보 제공	중학교 교사 초청 수업, 영상 자료 활용 수업 중학교 방문 체험, 선배 멘토링, 일상적 발화를 통한 생활·학업 변화 안내	교육청 차원의 표준화된 자료 개발·배포, 중학교 입학 초기 프로그램과의 연계
자기관리 습관 형성	플래너 활용 훈련, 알림장·준비물 자기관리 훈련, 자기주도 학습법 형성	교육과정 내 자기관리 역량 활동 지침 제공
학업 적응 준비	서술형 글쓰기·평가 습관 훈련, 수행평가 기한 엄격 적용 자기주도 프로젝트 수행	중학교 평가 방식 경험 활동 안내
정서적 안정 및 동기 부여	불안 해소·심리적 안정감 형성 성장·새출발 동기 부여, 자기 성찰·인성 교육	불안 해소와 동기 부여의 균형 있는 프로그램 구성
또래 관계 역량 형성	또래 갈등 자기 해결 방법 교육 또래 관계 주의점 안내, 남녀 구별 교육	전환기 프로그램 내 또래 관계 역량 활동 포함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중학교 시스템 이해 안내, 선행학습보다 정서 안정 강조	학부모 대상 별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간 연계 기반 구축	지역전문가 연계 체계 구축, 중학교 방문 체험 초·중등 교사 비공식 교류	초·중 교사 협력 체제 구축(전원), 중학교 입학 초기 프로그램과의 내용적 연계

2. '전환 적응' 프로그램 교육 내용 영역 (중학교)

1) 학교 환경 및 생활 적응

중학교 교사 6명 전원이 입학 초기 학교 환경 및 생활 적응 지원을 전환기 교육의 핵심 실천으로 언급하였다. 다만 프로그램의 시간과 내용은 학교마다 편차가 컸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입학 첫날 또는 첫 주에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중6-취 교사는 입학 첫날 3~4교시를 '적응 시간'으로 운영하여 학교 규칙, 시설 위치, 수업·쉬는 시간 체계를 안내하였다. 중5-이 교사는 입학식 날 수업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학교 투어를 실시하여 교실, 급식실, 교무실 위치와 이동 수업 동선, 급식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또한 학교 환경 안내를 넘어 '어른에게 인사하는 방법', '팔짱·턱 괴지 않기', '식판 사용법', 'sns·문자 예절', '교무실 방문 시 말하는 방법' 등 20년 이상 중1 전담 경력에서 축적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바탕으로 행동 수준의 생활지도를 하고 있었다. 중2-김 교사는 학년 교사들이 공동으로 자료를 제작하여 이틀간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은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이 학교별로 편차가 크고, 대부분 1~2일에 그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6명 전원이 전환기 교육의 제도화·법제화를 제언하였으며, 최소 시수 의무화, 교육과정 편입, 표준 자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2-김 교사는 '제도가 오면 교사의 인식도 따라온다'라며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자기관리 역량 적용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달리 담임교사가 교실에 상주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시간과 과제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난다.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기관리 역량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중1-국 교사와 중2-김 교사는 시간표, 과제, 수행평가 기한 등 스케줄 자기관리를 강조하였다. 중1-국 교사는 3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조회, 종례 시간에 10분씩 생활지도와 상담을 병행하며 자기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지도하였다. '문제가 발생하면 담임이 아닌 해당 교과 교사에게 직접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교무실 위치 파악과 교사에게 말하는 방법까지 지도하였다. 중2-김 교사는 "여긴 초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였다.

교사들은 자기관리 역량이 중학교 적응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중4-전은 입학 초 수업 시수 경감과 상담을 공식 업무로 인정해 줄 것을 제언하였고, 중3-유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여 교육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3) 학업 및 평가 체계 적응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수행평가, 정기고사 등 초등학교와 다른 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중2-김 교사는 자유학기제 수행평가의 의미를 설명하며 “성적에 들어가지 않지만 연습이다, 이것 잘해야 남은 5학기도 잘한다”라고 안내하였고, 2학기 전환 시점에는 “모든 행동이 평가에 들어간다”라고 명확히 안내하였다. 중5-이 교사와 중1-국 교사는 각 교과 첫 시간에 진도 대신 교과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수행평가 방식과 교과 목차를 안내하였다. 중1-국 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교과별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었다. 중3-유 교사는 기초학력 진단과 보충 프로그램 연계를 실천하고 있었다.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학력 격차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진단 검사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파악하고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초등학교 학부모는 내 아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중학교 와서 현실을 알게 되고 격차가 드러난다’라며 학업적 부적응과 심리적 부적응이 ‘두 바퀴’처럼 맞물려 함께 작동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전환기 교육의 시간적 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여, 중6-최 교사와 중4-전 교사는 1학기 운영이 적응 교육에 유리하다고 하였고, 중3-유 교사는 ‘단순히 놀기’가 아닌 진단·적응·보충 기간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중1-국 교사는 1학기과 2학기 편성의 장단점을 모두 분석하여 전환기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4) 정서·심리 안정 지원

전환기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며, 사춘기와 맞물려 정서적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자존감 형성을 돕는 실천을 하고 있었다. 중5-이 교사와 중3-유 교사는 전환기 불안과 긴장을 다루며 자존감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중5-이 교사는 ‘자존감이 약한 학생이 갈등을 겪으면 자존감이 더 하락하고, 팀을 만들어 싸우려 한다’라는 악순환을 인식하고, 자존감 형성을 전환기 교육의 핵심으로 보았다. 또한 ‘새로운 학교급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틈’이라는 동기 부여를 통해 긍정적 기대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중3-유 교사와 중1-국 교사는 사춘기 변화와 정서적 충격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이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에 학교 환경까지 바뀌면서 정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사춘기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과 대처 방식이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서·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사들은 정서·심리 지원이 전환기 교육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진로연계교육이 진로 영역에 편중되어 정서·관계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에 정서·심리 안정 활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중2-김, 중6-최).

5) 또래 관계 및 갈등 대응

중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교사가 교실에 없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또래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중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갈등 대응 역량을 기르는 실천을 하고 있었다. 중6-최 교사와 중2-김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중6-최는 자신의 수업 시간을 할애하여 반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중2-김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한다고 하였다. 중5-이 교사는 친구 간 갈등 시 ‘선생님께 무조건 이르기’가 아닌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지도하였다. 담임교사가 교실에 상주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아이들만 있는 교실에서 갑자기 주어진 자유에 적응해야 하므로 교사들은 이러한 자율 상황에서의 행동 지침을 안내하고 있었다. 중6-최 교사는 쉬는 시간의 자유로움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섬세한 생활지도를 하고 있었고, 중1-국 교사는 교사 부재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지도하였다. 중1-국 교사는 “중1 아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교무실로 달려와 신고해요”라고 하며, 일부 학교에서는 1학년 교실에 ‘SOS 벨’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시 교무실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쉬는 시간’ 문제는 중학교 교사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또래 관계 역량을 기르는 예방적 교육이 이루어지면 중학교에서의 갈등 대응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전환기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6) 학부모 소통 및 지원

중학교에서는 학부모와의 소통이 초등학교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환기에는 학부모도 불안을 경험하므로, 학부모와의 조기 소통과 지원이 중요하다. 중4-전 교사는 입학 초기에 학부모 30명 전원에게 방과후 상담 전화를 하여 교사 소개, 학생 정보 파악, 안심 메시지 전달을 하였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먼저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공식적인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 체력적·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하였다. 나머지 5명의 교사는 학부모 소통 관련 실천이 없어, 중학교에서 학부모 소통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중5-이 교사는 학부모 민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의 대부분은 초·중 학교급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개별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교사들은 입학 시점이 학부모 관심이 가장 높은 때이므로, 이 시기에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중2-김 교사는 학년부장이나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학부모가 학교급 변화를 이해하고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7) 학생 정보 연계 및 안전망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할 때 학생 정보가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위기 학생이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정보 단절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중3-유 교사는 위기 학생을 ‘농친’ 경험을 언급하며 ‘초등학교 때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고, 중5-이 교사는 생활기록부(NEIS)에 상담 기록이 있어도 다음 교사가 열람할 수 없는 시스템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중1-국 교사는 사전 정보가 있으면 학생 파악과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정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개별 상담으로 학생을 파악하고 있었다. 중4-전 교사는 2~3주간 교과 수업 대신 개별 상담을 실시하였고, 중6-최 교사는 학기 초 2주간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중1-국 교사는 3월 한 달간 매일 조회·점심·종례 시간을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은 제도적 지원 없이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중3-유 교사는 위기 학생을 경찰·복지센터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 경험을 언급하며 통합적 맞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사들은 초·중 학생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과 위기 학생 정보의 사전 공유, 합동 연수·교원학습공동체 등을 통한 협력 체제 구축을 강력히 제안하였다(중1-국, 중3-유, 중4-전, 중5-이).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전환 적응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전환 적응 프로그램 교육 내용 영역 종합(중학교)

영역	실천	제언
학교 환경 및 생활 적응	입학 초기 적응 교육: 학교 규칙·시설·일과 안내 학교 투어, 구체적 행동 수준의 생활 지도: 인사법, 식판 사용법, 교무실 방문 방법 등	전환기 교육 제도화·법제화 최소 시수 의무화, 표준 자료 제공
자기관리 역량 적용	스케줄 자기 관리 지도, 교과 교사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법 안내, 일상적 생활지도·상담	중1 담임 시수 경감, 상담의 공식 업무 인정, 행정 업무 축소
학업 및 평가 체계 적용	자유학기제·수행평가 시스템 안내, 교과별 오리엔테이션, 기초학력 진단 및 보충 프로그램 연계	자유학기제의 전환기 교육 활용, 진단·적응 기간으로 재설계
정서·심리 안정 지원	전환 불안·긴장 다루기, 자존감 형성, 사춘기 변화 이해·지원, “새로운 시작” 동기 부여	전환기 프로그램에 정서·심리 활동 명시적 포함, 남녀 구별 맞춤 프로그램 필요
또래 관계 및 갈등 대응	학교폭력 예방 교육, 또래 갈등 자기 해결 방법 지도, 쉬는 시간 자율 상황 행동 지침	전환기 특성 반영 학폭 예방 프로그램, 초등학교 예방 교육과의 연계
학부모 소통 및 지원	입학 초기 학부모 개별 전화, 학교급 변화 이해 안내, 사교육 불안 해소 메시지	입학 시점 학부모 교육 실시, 학년부장 담당 체계 구축
학생 정보 연계 및 안전망	입학 초기 개별 상담·리포 형성, 위기 학생 외부 기관 연계	초→중 학생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초·중 교사 합동 연수·협력 체제, 위기 학생 외부 기관 연계 맞춤 지원

3. 초·중학교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영역 연계 구조

앞서 분석한 초등학교 전환 준비 프로그램과 중학교 전환 적응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영역을 비교하여 연구 문제 3에 답하고자 한다.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에서 도출된 영역의 명칭과 내용을 비교하여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영역을 확인하였다. 이후 대응되는 영역 내에서 초등학교의 실천 내용과 중학교의 실천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즉 내용의 연계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초·중학교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 교육 내용 영역 연계 구조

영역	초등학교 (전환 준비)	중학교 (전환 적응)
1) 정보 제공 및 환경 적응 지원	중학교 생활 변화 안내, 중학교 교사 초청, 선배 멘토링, 중학교 방문 체험	학교 환경·시설 안내, 학교 규칙·일과 체계 안내, 구체적 행동 수준의 생활 지도
2) 자기관리 지원	플래너 활용 훈련, 알림장·준비물 자기관리, 자기주도 학습법 형성	스케줄 자기 관리, 교과 교사 대응 방법, 다양한 교사 성향에 맞춘 사회적 자립
3) 학업 적응 지원	서술형 평가 습관 훈련, 수행평가 기한 엄격 적용, 자기주도 프로젝트 수행	자유학기제·수행평가 시스템 안내, 교과별 오리엔테이션, 기초학력 진단 및 보충
4) 정서·심리 지원	전환 불안 해소, 성장·새출발 동기 부여, 자기 성찰·인성 교육	전환 불안·긴장 다루기, 자존감 형성, 사춘기 변화 이해·지원, 남녀 구별 교육
5) 또래 관계 지원	또래 갈등 자기 해결 방법 교육 (예방적), 또래 관계 주의점 안내, 남녀 구별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또래 갈등 자기 해결 지도 (대응적), 쉬는 시간 행동 지침
6) 학부모 교육	중학교 시스템 이해 안내, 선행학습보다 정서 안정 강조	학교급 변화 이해 안내, 사교육 불안 해소, 입학 초기 학부모 소통
7) 학교 간 연계	초·중 교사 교류, 중학교 방문 체험, 지역전문가 연계 체계 구축	초→중 학생 정보 연계, 위기학생 안전망, 외부 기관 연계

표에서 나타나듯이, 두 학교급에서 도출된 영역은 7개 모두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구조를 보인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영역 명칭이 일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에서 ‘예고’하거나 ‘연습’하는 내용이 중학교에서 ‘실제 적용’되거나 ‘현장 지도’되는 방식으로 내용이 연계(articulation)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안 계신다”라고 안내한 내용은 중학교에서 ‘쉬는 시간 자율 상황에서의 행동 지침’으로 연결된다. 초등학교에서 ‘플래너 활용’으로 형성한 자기관리 습관은 중학교에서 ‘스케줄 자기 관리’로 실제 적용된다. 초등학교에서 예방적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또래 갈등 해결 교육은 중학교에서 실제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지도로 이어진다.

이러한 내용적 연계는 두 학교급의 전환기 교육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와 달리, 서로의 교육 내용을 참조하고 이어받는 방식으로 설계될 때 학생들의 전환 적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Dockett과 Perry(2007)가 강조한 ‘연속성(continuity)’ 확보의 원칙과 맥을 같이하며, 초·중학교 전환기 교육이 각 학교급의 독립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연계된 통합 체계로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V. 결론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전환 준비’와 ‘전환 적응’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영역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 제공 및 환경 적응 지원, 자기관리 지원, 학업 적응 지원, 정서·심리 지원, 또래 관계 지원, 학부모 교육, 학교 간 연계의 7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7개 교육 내용 영역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전환기 학생의 어려움 영역 및 학교적응 구성 요소와 대응되는 구조를 보인다. 유순화(2007)는 초·중 전환기 학생들이 학업, 교사 관계, 또래 관계, 학교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걱정과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정송 외(2022)도 전환기 학교적응에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가정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규미와 김명식(2008)은 중학생 학교적응이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도출된 7개 영역은 이러한 학교적응 영역을 포괄하면서 학부모 교육과 학교 간 연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환기 교육이 학생의 적응뿐 아니라 학부모 지원과 학교급 간 연계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전환 준비’와 중학교의 ‘전환 적응’의 교육 내용이 내용적 연계(articulation)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학교급에서 도출된 7개 영역은 단순히 명칭이 일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에서 ‘예고’하거나 ‘연습’하는 내용이 중학교에서 ‘실제 적용’되거나 ‘현장 지도’되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이는 Dockett과 Perry(2007)가 강조한 ‘연속성(continuity)’ 확보의 중요성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안내해도 입학 후 잊힌다”고 하였고,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 정보가 없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초·중학교 전환기 교육이 각 학교급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내용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정서·심리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최효식(2025)은 전환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적응 수준이 학교생활 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박찬욱과 한호현(2019)도 정서·사회적 적응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현행 진로연계교육이 진로 영역에 편중되어 정서·관계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에 정서·심리 지원 영역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학부모 교육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도출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전환기 교육 연구는 주로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부모의 불안과 이해 부족이 학생의 전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정송 외(2022)가 초·중 전환기에 가정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며, 전환기 교육에서 학부모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원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상준과 신봉호(2009)는 중학교 1학년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인 관계 능력,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달리, 제도적 지원 없이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축적해 온 실천 경험을 체계화하여 교육 내용 영역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 간 실천의 편차가 크고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천적 지식을 체계화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담임 경험이 있는 교사 12명의 실천 경험을 분석하여,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영역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 제공 및 환경 적응 지원, 자기관리 지원, 학업 적응 지원, 정서·심리 지원, 또래 관계 지원, 학부모 교육, 학교 간 연계의 7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각 영역은 초등학교에서는 ‘전환 준비’, 중학교에서는 ‘전환 적응’의 성격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학교급의 교육 내용이 내용적 연계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전환기 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전환기 교육은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학교 간 편차가 크므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활동(34시간)과 같이 최소 시수를 확보하고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진로연계교육의 확장이 필요하다. 진로 탐색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행 체제로는 전환기 학생들의 다면적 어려움을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7개 영역을 참고하여 내용을 확장하거나 별도의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초·중 교사 간 협력 체제 구축, 학생 정보 연계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학교급 간 단절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전환기 담임교사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담임 시수 경감, 표준화된 자료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부모 교육이 전환기 교육의 한 요소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전환기 학생들의 디지털 적응을 지원하는 내용이 향후 프로그램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실천해 온 경험을 종합하여 교육 내용 영역을 도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내용적 연계 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12명으로 제한적이며 특정 지역과 학교 규모에 편중될 수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교사의 관점에 기반하였으므로 전환기 교육의 실질적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경험과 필요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학생이 실제로 느끼는 전환기의 어려움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은 교사의 인식과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점을 포함한 다각적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7개 영역 중 학업 적응 지원의 경우 교과별 구체적인 연계 활동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교과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교육 내용 영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6). 『202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교육부.
- 박찬욱·한호현 (2019).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청소년의 정서·사회적 적응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5), 1-20.
- 엄선영·이강이 (2012).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4(3), 89-100.
- 유순화 (2007).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각. **초등교육연구**, 20(1), 355-376.
- 이규미·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학교**, 5(1), 27-40.
- 이영애·정현희 (2016).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7(2), 187-214.
- 전상준·신봉호 (2009). 중학교 1학년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아동교육**, 18(2), 193-202.
- 정송·우연경·송주연·노연경 (2022). 『학교급 전환기 학교적응의 유형화 및 종단적 변화 탐색 (서교연 2021-8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최효식 (2025). 초·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심리적 특성 잠재집단 탐색 및 영향 요인 검증: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12), 159-17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중·고등학교 전환기 학생 지원 방안 연구: 교수·학습 특성 및 지원 실태 분석』. 연구보고 RRI 2019-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Anderson, L. W., Jacobs, J., Schramm, S., & Splittgerber, F. (2000). School transitions: Beginning of the end or a new begin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4), 325-339.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Dockett, S., & Perry, B. (2007). *Transitions to school: Perceptions, expectations, experiences*. Sydney: UNSW Press.
- Eccles, J. S. et al. (1993).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The impact of stage-environment fit o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in schools and in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48(2), 90-101.

Abstract

Exploring the Educational Content Domains of Elementary-to-Middle School Transition Education Programs: Focusing on Teachers' Practical Experiences

Lee, Jin A¹ · Chung, Hye Young²

¹*Doctoral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²*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content domains of elementary-to-middle school transition education programs and examine the content linkage structure between the two school levels, based on teachers' practical experiences.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teachers (6 elementary, 6 middle school) selected through purposive sampling, who had at least three years of homeroom experience with 6th or 7th grader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seven common educational content domains applicable to both 'transition preparation' (elementary) and 'transition adaptation' (middle school) programs: (1) information provision and environmental adaptation support, (2) self-management support, (3) academic adaptation support, (4)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upport, (5) peer relationship support, (6) parent education, and (7) inter-school connection. Each domain showed a content linkage structure (articulation) where content introduced or practiced in elementary school is applied or guided in middle school setting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ransition education, expansion of career-linked education, strengthening of inter-school connections, support for transition-grade homeroom teachers, inclusion of parent education, and incorporation of digital adaptation support.

Key Words: elementary-to-middle school transition, transition education, transition preparation, transition adaptation, educational content domains